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2차시 : 3.1운동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	학번	
	임종일 T		이름	

★帝國에서 民國으로 : 3.1운동

▶배경

1) 대외적 변화 - 국제정세가 변하다

- ① 세계 1차 대전(1914.7.28.~1918.11.11.)이 끝남. (WW I)
- ② 1차대전 중 1917년, 러시아에서 ①)일어남.
↳ 레닌, 식민지배를 받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
- ③ 미국 대통령, ②) -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
그 원칙 중 “각 민족은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③)의 원칙이 포함.

2) 대내적 움직임

- ① 상하이, ④) - 파리강화회의에 ⑤)을 파견
- ② 독립 선언의 움직임도 활발
- 상하이 - 신규식, 신채호 - ⑥)발표
- 만주 - 조소앙 등이 독립선언 준비 (무오독립선언서)
- 1919. 2. 8.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⑦)이
도쿄의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서 발표 (2.8.독립선언)

이러한 상황속에서 1919. 1. 21. ⑧)의 죽음

- 일제의 독살설이 퍼져 반일감정이 높아짐

→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지도자 + 학생대표
: 독립선언 &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

▶전개과정

- 민족대표 - ‘독립선언서’ 작성 & 3.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 선언식을 열기로 함.
- 손병희, 한용운, 이승훈 등 민족대표는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시행
- 학생, 시민이 모여있던 탑골공원에서 군중 중 한 명이 독립선언서 낭독 이후, 학생,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종로를 행진

만세시위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농촌으로 확산

학생, 시민이 주도하던 시위는 ⑨), ⑩)이 주도, 조직화

일본,

- 강력하게, 무력으로 탄압

군대, 소방대, 재향군인회 등을 동원하여 시위를 탄압

ex) 제암리 학살 사건

- 일본이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한국인은 무력저항으로 대응
농민을 중심으로 군청, 면사무소, 헌병경찰주재소 등 식민통치기관 습격

해외에서의 만세운동

- 도쿄, 오사카, 삼원보,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중국, 미주지역까지
시위가 일어남.

하와이, 호놀룰루 - 대한인국민회 - 전체 동포회의를 열어 독립선언식 시행

♥ 시위의 원칙

-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

♥ 3.1운동을 촉발한 것은

민족대표33인이지만, 곧바로 체포.
시위를 이끌 지도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동안 시위가 일어남.

▶‘철도’와 ‘주요도로’를 따라 확산

학생 - 시위, 동맹휴학

상인 - 철시

노동자 - 동맹 파업

농촌 - 장날에 시위가 일어남

농민 - 부역거부, 납세고지서 수령거부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3.1.만세 시위에 200여만명이 참여

이 중 7500여명 피살,

1만 6000여명이 부상

4만 6000여명 체포.

	한국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22차시 : 3.1운동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	학번	
	임종일 T		이름	

▶ 결과, 의의 : 민족독립운동의 기반 / 帝國에서 民國으로

결과

- ① 일제의 통치방식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화하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중국의 5.4.운동 등 세계 약소민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의의

-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 겨레가 참여한 거국적 민족운동
-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
-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립운동의 기반 마련
- 帝國에서 民國으로

♥ 사료학습

1919. 2. 8. 독립 선언서

1. 우리는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며 동양의 평화까지도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독립을 주장함.
2. 우리는 일본 의회 및 정부에게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이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함.
3. 우리는 만국 강화 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청구함.

기미독립선언서 (1919. 3. 1.)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후략)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출옥한 소녀들의 증언

감옥에 아직도 남아있는 두 소녀는 고문을 당해야 했다. 한 소녀는 양쪽 엄지 손가락을 한데 묶여 매달렸다. 다른 소녀는 이화학당에서 가장 총명하고 예쁜 여학생으로 내가 진남포에서 시작한 최초의 여학교 출신인 박 인덕이다. 그녀는 옷을 벗기우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였다. 그녀는 또한 무릎을 꿇고 앉아 무거운 의자를 들고 있어야 하는 고문도 당하였다. 만일 떨어져 손이 내려오면 팔을 맞아야 했다.

3.1운동에는 여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로서 여학생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었다. 검거된 여학생이 일본 경찰한테서 겪은 모진 수모는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유관순 법정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